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8년 9월 1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12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9. 12.(수)	담당부서	수출입과
담당과장	이원희 과장(044-203-4040)	담 당 자	홍석민 사무관(044-203-4042) 이영주 사무관(044-203-4043) 윤삼희 사무관(044-203-4031)

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, 수출점검회의를 계기로 대내외 구조적 위기에 대응, 통상·무역 등 3대 전략 제시

- ❶ 다자주의 복원 노력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능동적 대처
❷ 인도·인니 등 4개국 집중 공략, 신산업·소비재 중심 품목 다변화 추진
❸ 산업·무역·금융 연계로 수출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

- 올해 사상 최초 6천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9월 수출에 총력 대응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9. 12.(수) 오후 4시,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**로 「**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**」를 개최했다.

< 회의 개요 >

·**일시/장소** : '18.9.12(수), 16:00 /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
·**참 석** : (정부)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(주재), 무역정책관 등
(유관기관) KOTRA·무역보험공사 부사장, 업종별 협.단체* 상근부회장

* 반도체협회, 자동차협회, 자동차협동조합, 조선협회, 전자정보통신진흥회, 철강협회, 석유화학협회, 석유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섬유산업연합회, 디스플레이협회

○ 이번 회의에서는 **11개 주요 업종별 협회·단체** 및 **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·무역보험공사**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,

○ ①**9월** 및 **향후 수출 여건·전망**, ②**수출 유관기관 향후 수출 진흥 활동 계획**, ③**수출 관련 업계 애로** 및 **건의사항** 등을 논의했다.

□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**은 "올해 **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**을 달성하는 등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**올해 사상 최초 6,000억 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.**"라고 밝히면서도, 동시에 **대내외 구조적 위기**에 대한 **적극적 대응을 강조**했다.

○ 먼저, **위기요인**으로서, "미 연방준비제도의 **추가 금리인상**에 따른 **금융시장 변동성**, **신흥국 통화**의 **급격한 평가절하**로 인한 **신흥국 실물경제 불안**, 무엇보다 **미·중 무역분쟁 장기화**는 **우리 수출**에 **위협**이 될 수 있다."라고 말했다.

○ 특히, "**미·중 무역분쟁의 본질**은 해양세력인 탈라소크라시*(Thalassocracy)와 대륙세력인 텔루로크라시**(Tellurocracy) 상호간에 **기술·산업·금융 패권을 차지**하기 위한 **제국의 충돌**(Clash of Empires)"로 진단하고, "**구조적 갈등**으로 **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**"라고 말했다.

* 바다를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제국(예: 베네치아 공화국, 대영제국 등)
** 육지를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제국(예: 로마제국, 몽고제국 등)

□ 김 본부장은 "**이러한 대내외 구조적 위기를 타파**하기 위해 **특단의 수출전략이 긴요**하다"고 하면서, 통상·무역 등의 분야에서 **3가지 정책 방향**을 **제시**했다.

❶ (**통상정책**) 첫째, 국제 **보호무역주의 확산**에 **능동적으로 대처**한다.

- 미·중 무역분쟁으로 자유무역 질서의 위기가 악화되지 않게, **한국도 국제통상 논의**에 **적극 참여**해 **다자주의 복원**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.

- 이의 일환으로, 주요 20개국(**G20**), **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등 다자협의체**를 통해서, **자유무역질서를 보존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**가 확고히 형성되도록 **다각적인 통상외교활동**을 전개할 것이다.

-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**미·중 무역분쟁**에 따른 **피해 최소화**를 위해, **피해확인 절차 없이 긴급 무역보험을 지원**하며, 이미 가동 중인 「**실물경제 대응반**」을 통해 **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결**할 계획이다.

❷ (**무역정책**) 둘째, **수출 시장·품목 다변화**를 **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추진**한다.

- 국내총생산(GDP)·인구규모가 10위권 내외인 **인도·인니·러시아·브라질**을 4대 「**전략적 수출 공략 신흥시장**」으로 **선정**하여 **수출 마케팅 재원을 집중 투입**하고, **무역금융 지원**도 **확대**하여 **'22년까지** 4개 국가에 대한 **총 수출 규모**를 현재보다 **70% 이상 끌어올릴 계획**이다.

< (참고) 「전략적 수출 공략 신흥시장」 경제 규모 및 목표>

구 분	인도	인도네시아	러시아	브라질
GDP('18, $)	2.8조(7위)	1.1조(16위)	1.7조(11위)	2.1조(9위)
인구('18, 명)	13억(2위)	2.7억(4위)	1.4억(9위)	2.1억(5위)
한국 수출('17. $, 비중)	151억(2.6%, 7위)	84억(1.5%, 13위)	69억(1.2%, 17위)	55억(1.0%, 20위)
22년 목표($, 비중)	237억(3.0%, 6위)	158억(2.0%, 10위)	122억(1.6%, 12위)	100억(1.3%, 16위)

- 또한, 첨단융합분야에서 **글로벌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**하여 **주력 품목**의 **수출 경쟁력**을 **높**이고 특히, **수출 성장·우량기업**이 **신산업 수출**시 **무역금융 지원도 대폭 늘려 '22년까지 신산업 수출 규모**('17년 736억 달러, 12.8%)를 **1,200억 달러**(수출비중 16%) 이상으로 **확대할 예정**이다.

- 한편, **유망 소비재**('17년 268억불, 상위 9위 품목 수준) **무역보험 지원 대상**을 중소·중견기업에서 **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**하여, **'22년**에는 최초 **400억불 이상 수출 실현**으로 유망소비재를 디스플레이를 넘어서는 **품목**으로 **육성**할 계획이다.

❸ (**산업정책**) 셋째, **수출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이끈**다.

- **산업·무역·금융**을 **연계**하여 **수출 활성화**가 **혁신성장**과 **긴밀하게 연결**되도록, **기업 성장단계별 무역보험 차등 지원 시스템을 처음 도입**하고, **창업·벤처기업**의 경우 수출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**수출 신용 보증**을 **즉시 제공**하는 등 파격 지원을 시행할 것이다.

- 아울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**크라우드 펀딩 사업**을 아시아에서 **북미시장까지 확대**와 **중장기적 전략사업으로 육성**하고, 나아가 올해 말까지 4차 산업혁명,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포괄하는 **새로운 무역 전략도 수립할 계획**이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**주요 업종별 협·단체**도 "최근 **세계 경제·교역 회복세**에도 불구, 9월에는 추석연휴로 인해 **조업일수 자체가 적은 상황***(△4일)이며, **전년 기저효과****의 **영향**도 있어 **큰 폭의 수출 감소가 전망**되고 있으므로 **9월 수출**을 위해 **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.**"라고 말했다.

* 조업일수 감소 효과 : 조업일수 △4일 감소시 약 △80억불 내외 수출 감소 추정
(추석 연휴 : '17년 10.3~6일 → '18년 9.24~26일)

** '17.9월 수출 : 551.2억 달러(선박 31.2억 달러)로 사상 최대실적 기록

□ 이에 대해, 정부는 ①**보호무역주의 피해 지원**, ②**수출 시장·품목 다변화**, ③**수출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** 등 3가지 측면에서 **수출 활성화**를 위한 **특별 지원 계획**을 밝혔다.

< 보호무역주의 피해 지원 >

○ (**무역금융**) 미·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*은 **피해확인 절차 없이, 수출자금 공급한도를 1.5배**까지 **확대**하는 등 피해 확산에 선제적 대응(**9월~**)

* (대상) ①미중 수출비중 50% 이상, ②미중 수출 30% 이상 감소, ③계약취소 등 피해발생
** (내용) 수출 이행 자금 한도 1.5배 우대, 기존 보증건 갱신시 한도 유지, 보험사고 신속보상 (기간 단축 2→1개월, 필요시 선지급 후정산), G2 외 수입자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(5회)

○ (**해외마케팅**) **수입규제·비관세장벽 세미나**를 개최(9.17) 하고, **수출상담회·사절단**(59회), **전시회**(21회) 등을 **신흥시장 중심**으로 **추진**

< 수출 시장·품목 다변화 >

○ (**시장 다변화**) 국내총생산(GDP)·인구규모 10위 내외인 **인도·인니·러시아·브라질**을 「**전략적 수출 공략 신흥시장**」으로 **선정**해 **지원역량 집중**

- (**무역금융**) **전략 신흥시장*** 수출시, **단기수출보험 기존한도 일괄 10% 증액, 신규한도도 최대 2배까지 확대** (**10월~**)

* 인도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브라질, 베트남, 말레이시아

- (**해외마케팅**) 신흥시장별로 **특화**된 **해외마케팅 지원**을 위한 **대형 특별 프로그램** 및 **신흥시장 마케팅**을 **하반기에 집중 시행** (총 21억 원)

  * 러시아(동방 경제포럼 활용 사업 발굴, 9.10-11), 브라질(자동차 부품 상담회, 9.13-14), 인니(프리미엄 소비재전, 11월), 인도(의료기기 상담회, 12월) 등

○ (**품목 다변화**) 주력품목 외에 **신산업**(전기차・바이오헬스 등), **소비재**(화장품・의약품 등) 등 **유망품목 수출 활성화**를 위한 **지원 가속화**

- (**신산업**) **수출 성장・우량기업**이 **유망 신산업*** 수출시 **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.5배 확대**하는 등 **무역금융을 전폭적으로 지원**하고, 플랫폼형 대형사업 등과 연계하여 **품목별로 맞춤형 판로 확대 지원****

  * 전기차, 로봇, 바이오헬스, 항공우주, 에너지신산업(태양광·전기차/ESS용 축전지·스마트미터), 첨단 신소재, 차세대 디스플레이, 차세대 반도체 등

  ** (ICT) Global Mobile Vision(10월, 국내), K-Global@Silicon Valley(11월, 해외) 등
  (의료.바이오) 헬스케어 서비스 수출상담회(9월) 등

- (**소비재**) **유망 소비재*** **무역보험 특별지원**** **대상**을 중소・중견에서 **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**하고, 한류 유망지역 「**한류 융합상품전**」 개최(10월 태국, 11월 싱가포르), 전자상거래 유통채널 활용 등 **프리미엄 소비재 단계별 지원*****도 강화**

  * 의약품, 농수산식품, 화장품, 유아·생활용품, 패션·의류로 총 4,115개 품목으로 '17년 기준 상위 9위 수준(268억 달러)

  ** 보험료 할인 : (대기업) 10%, (중소기업) 25% / 한도 최대 2배 확대 지원

  *** 단계별 지원(시장성 분석 → 진출전략 수립 → 거래선 발굴 → 진출전략 고도화) 플랫폼 사업 등

< 수출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 >

○ (**성장단계별 맞춤 지원**) **산업・무역・금융**을 **연계**하여 **수출 활성화**가 **혁신성장과 긴밀히 연결**되도록 **기업 성장단계별*** **무역보험 지원 시스템**을 **최초로 구축**하는 한편, **단계별 수출 마케팅 지원**도 **강화**

  * 수출 희망기업 → 초보기업 → 성장(유망)기업 → 우량(강소.중견)기업 등

  * (희망·초보기업) 무역보험 특별지원 즉시 시행(9월 ~)
  (성장·우량기업) 수출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4분기 중 특별지원 확정

- (희망) **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 신용보증**을 **1.5억 원까지 특별 제공, 연대보증 입보 면제** 등 파격적으로 무역금융 지원

  * 수출 이행자금 확정(1억원 또는 1.5억 원, 심사즉시 제공) 및 보증료(최대 30%)할인, 단기수출보험(1.5배) 우대 및 보험료(최대 50%),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등

- (초보) 수출실적에 따라 **이행자금을 1.5억 원까지 특별 제공, 수출채권 유동화 한도 최대 1.5배 확대*** 등 기업의 위험을 전방위로 보호하고, 「수출 첫 걸음 종합대전」(9월) 등 **초보기업 전용 마케팅****(22건) **지속 지원**

  * 수출 이행자금 확정(0.5억원~1.5억원, 심사즉시 제공)·보증료(최대 20%) 할인, 수출채권 유동화 한도(최대 1.5배)·보증료(최대 30%), 단기수출보험료(최대 50%) 할인 등

  ** 유망 해외 시장을 선정하여, 유통망 입점지원·판촉전·로드쇼 등을 개최

- (성장) **수출채권 유동화 한도**를 **최대 2배까지 확대 및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도 보호**하여 대형 수출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제공하고, **지사화 사업** 1,800여건(약 100억원) **조기 시행**(11월→8월) 및 **300여개 기업**에 **120억원 규모**의 **수출 바우처를 발급 (9월)**

- (우량) **수출채권 유동화 한도**를 **최대 2.5배까지 확대**하는 동시에, 월드챔프·수출중견기업(277개사) **목표시장**(501개 시장)을 **선정**하고 **이행방안(로드맵) 수립** 후 **맞춤형 해외 마케팅**과 **세계화 지원**

○ (지방 수출지원 인프라 확대) **코트라 지방지원단 조직 보강(+30명, 9.1일)**을 통해 **지역 밀착형 해외진출 지원** 및 **애로 해소**

○ (**크라우드 펀딩**) 온라인 거점(플랫폼) 등을 활용해 다수 후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**크라우드 펀딩**을 **북미시장까지 확대***하고, **중장기적으로 전략사업으로 육성**

  * ('16~'17) 일본, 마쿠아케, 중국, JD 매칭 지원 → ('18.10) 미국 인디고고 설명회 예정

□ 한편,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**총 35건의 업계 애로사항**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하였으며, 산업부는 이 중 **12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**했고, **16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**에 있다고 밝혔다.

○ 애로를 수용한 대표 사례로는 **한·중 디스플레이 기술교류회 추진**, **석유화학**에 대한 **중국 등 수입규제** 관련 **정부·업계 간 공동 대응** 등이 있었다.

○ 이외에도 **한·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 양허 개선 요청**, 신속한 **통상 이슈 정보 공유, 원산지 관리 강화** 등 **13건의 애로사항**이 **새롭게 제기**되었으며, 향후 수출 점검회의시 애로 해결 추진 경과를 추가로 공유할 예정이다.

□ 마지막으로 김현종 본부장은 "**지난해 9월 사상 최대 수출실적**에 따른 **기저효과**와, **조업일수 4일 감소**로 전년 동월대비 **마이너스를 기록할 우려**가 크므로, **9월 수출이 플러스**가 될 수 있도록 각 업종별 협·단체, 수출 유관 기관이 **총력을 다해 달라.**"라고 당부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홍석민 사무관(☎044-203-40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